



순천시,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

순천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시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강반도 개설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 재정 현황 및 현안사업,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시청사 건립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고, 은평구 주민참여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재학 강사를 특별 초빙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시민의 역할 및 선진사례를 소개하는

시민위원·시민 등 150여 명 참석
예산 이해 증진·참여 활성화 꾀해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순천형 착한 일자리, 공동체 문화, 인구정책, 나눔과 배려의 복지, 청년과 청소년 등의 주제를 가지고 분임토의를 통해 시민 공감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2018년 예산편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최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은 지방자치 실현의 시작점이다"며 "시민과 함께 발굴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종영 기자

제2기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출범

자치교육·역사도시·보건복지 등 5개 분과 70명 위촉

나주시 제 2기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가 출범했다.

나주시는 18일 오후 4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과 열린 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제 2기 시민소통위원으로 선정된 시민 70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88명을 대상으로 선정 실무위원회와 함께 총 4차례 심의를 거쳐 심사 기준표를 마련했으며, 이후 2차례의 선정심의회를 통해 제 2기 소통위원 70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 70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에 이어 소통위원장 및 5개 분과위원장을 투표와 추천을 통해 선출했다.

제 2기 소통위는 매월 정기적인 분과모임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분과별 현장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분석 및 정책 방향을 제시

하게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민선 6기 대표 공약인 소통위가 어느새 제 2기를 맞이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1기 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성숙되고 안정된 소통위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어, "생활 곳곳에서 전달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한 강 시장은 "소통위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폭넓게 반영해 적극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 2기 시민소통위원장에 선출된 보건복지분과 김관용(53, 남)씨는 "소통위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편으로 질·충·해, 지역사회 화합과 더불어 시정에 대한 공감과 소통을 통해 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주시, 집중호우 대비 선제적 대응책 효과 커

많은 강우로 일부 지역의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의 여름철 장마 대비 도로 집중정비를 통한 선제적 대응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나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 달간 원도심과 혁신도시, 읍·면 소재지 주요 도로 변과 상습침수구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도로정비를 실시·완료했다

상습침수구간 피해 미발생
이물질 적체 현저히 감소해

시는 해당 기간 동안 도로보수원 12명과 준설차량 및 장비를 동원해 집중정·맨홀·우수받이 등 도로 시설물에 쌓인 퇴적토 준설과 노면 집중 청소를 실시함과 더불어, 저지대와 상습 침수 발생지역 우수받이 신설·교체 작업을 완료했다.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 앞서 지난 달 25일,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정비구간 조사를 완료하고, 금성고앞·송월주공아파트·석현교 인근 등 상습 침수 구역을 집중 정비했으며, 중부농협·영산포초교 주변 도로 시설물에 대한 준설 작업도 일일까지 마무리 했다.

그 결과, 지난 주 집중호우에도 상습침수구간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퇴적토 등 이물질 적체도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 밤나무해충 친환경 항공방제

오는 24일까지, 고품질 밤 생산 및 재배농가 생산비 절감 효과

순천시는 오는 24일까지 친환경 약제를 이용하여 승주읍, 송광면 등 밤 재배단지 794ha에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이번 항공방제는 밤 재배농가의 노령화 및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재배지 여건을 고려하여 산림청과 순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밤 생산농가의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지역별 세부일정은 19일 외서·송광, 20일 상사·별량·향동, 21일 황전, 22일 황전·월등, 23일 낙안, 24일 낙안·승주·주암면 순으로 진행된다.

항공방제의 집중 방제대상 해충은 밤나무의 결실과 품질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북송이명나방이며,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은 약제를 사용하여 안전 먹거리로서의 밤 생산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순천시는 항공방제 기간 동안 방제 2km 이내 지역의 기축방목과 입산 및 산나물 채취를 금지하고,

양봉·양잠·양어장 보호조치 등 피해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항공방제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생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고품질 밤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항공방제 일정은 기상상황과 헬기 지원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인근 주민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일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시립중마도서관, 북스타트 부모교육 참여자 97.3% 만족

모든 조사 항목서 높게 나타나...내년도 시민 요구 적극 반영

광양시립중마도서관에서는 북스타트 부모교육에 참여한 영유아·초등 저학년 부모 5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7.3%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한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진행됐다.

조사항목은 강연과 강사 만족도, 내용의 유익성, 향후 참여와 추천 의향 등 총 5가지 항목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 걸쳐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며, 특히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다.

또한 개설을 희망하는 교육 주제로 부모와 아이의 대화법과 책 읽어주는 방법, 책 놀이 지도법 등 아이에게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와 강의횟수를 늘리고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강좌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중마도서관에서는 이번 만족도가 높게 나온 이유로 강연 위주의 기존 부모교육과 달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참여대상을 아버지까지 확대한 데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김현숙 중마도서관장은 "이번에 개선된 북스타트 부모교육에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내년 부모교육 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마도서관은 '책으로 삶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습관화해 평생독자로 만드는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0~48개월 아이에게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9월부터는 배부한 책을 활용하여 부모와 아이가 소통할 수 있는 책 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양=김광춘 기자



특별한 아이들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열리다

광양교육지원청, 유·초·중·고 교장 특수교육 연수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최근 관내 유·초·중·고 교장 42명을 대상으로 '2017. 통합학급 학교관리자 특수교육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前순천동산여중 교장 김광성 선생님을 초빙하여 장애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법규 및 장애인의 권리,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각급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예방과 더불어 행복한 광양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번 연수에서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비리스타 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커피 제조 시연회도 진행되었다. 서툰지만 차근차근 커피를 내려 선생님들께 대접하는 모습에 연수 대상자들의 격려와 칭찬이 이어졌다.

광양교육지원청 내영수 교육지원과장은 "장애학생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연수 및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남동부취재본부장=김승호 기자

세계적인 인류의 역사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